

줄저 《10대와 마주하는 인문학_공자의 논어》출간을 앞두고 4회에 걸쳐서 여성, 청소년, 약자, 교육에 관한 주제로 칼럼을 연재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공자와 청소년

청소년은 최상의 존중을 받아야 한다. 언젠가는 그가 지금의 당신과 똑같은 위치가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아는가? 이름을 떨칠 만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나이만 4,50이 된 사람이야말로 존경할 가치가 없다 - 《논어》, 「자한」 편)

공자가 백성의 고통에 본격적으로 눈을 뜬 시기는 생계를 위해 계손씨의 하급관리를 하며 고생한 시절이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벼슬을 얻는 것은 가난 때문만은 아니지만, 때로는 가난이 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나는 젊었을 때 사회의 밑바닥에서 일했다. 그래서 비천한 일이라도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었다.”(「자한」 편)라고 회상하며 ‘군자는 다재다능할 필요가 없다’며 말끝을 흐립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일종의 자격지심이 느껴집니다. 공자가 존경했던 정(鄭)나라 자산(子産)이나 제(齊)나라 안영(晏嬰) 등은 가업으로 정권을 맡았고 어려서부터 정치 수업을 했기 때문에 국가 정치와 국제 외교를 바라보는 안목이 넓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했으므로 아마추어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나라에서 높은 지위와 봉지(封地)를 받을 기회를 안영이 “예법이 복잡하고 파산할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기에 제나라 풍속을 바꾸고 백성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라는 말로 저지한 것처럼 공자는 당대의 정치가들에게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공자는 창고관리인[위리(委吏)]부터 일을 시작했죠. 일을 맡으면 항상 경계하고[경(敬)], 신뢰를 얻을 때까지[신(信)] 집중했습니다. 저울질이 공평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목축을 주관하던 관리[직리(職吏)]로 승진했습니다. 역시 가축을 번성하게 한 업적이 인정되어 오늘날 국토교통부장관과 비슷한 사공(司空)까지 지위가 올랐습니다.

공자는 청소년, 청년들을 대변하는 대신 가장들과 상전들과 강자들과 부자들과 유식한 이들을 꾸짖었습니다. 기원전 491년 염구가 노나라로 돌아갈 즈음에 공자는 “우리 고향의 젊은이들은 기개가 매우 높고 재능은 찬란하게 빛나지만, 그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공야장」 편)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공야장」 편)라고도 말했죠.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오기 충분합니다.

공자와 제자들이 이뤄낸 무혈혁명

공자는 단지 청년을 교육한 것만으로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꿔 놓았습니다. 공자는 이 정도 커다란 변화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청소년·청년 교육을 통해 사회개혁을 의도한 것은 분명합니다. 청소년 교육을 했다고 해서 어떻게 세상이 변화할 수 있을까요? 당시 노나라는 세습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아들은 왕이 되고, 귀족의 아들은 귀족이 되고, 백성의 아들은 백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신분은 절대 바뀔 수 없었죠. 귀족들은 철저히 보장된 신분만 믿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대부들에게 다 맡기자 실권이 대부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들도 중요한 일을 가신(家臣)들에게 맡기자 실권은 가신에게 넘어갔습니다. 결국 나라의 운명이 한낱 신하 한명의 손에 달린 우스꽝스러운 지경이 된 것이 노나라의 상황이었습니다.

노정공 8년(기원전 502년) 노나라의 가신인 공산불뉴는 계씨에게 뜻을 얻지 못하자 양호에게 의탁하여 함께 반란을 일으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호는 삼환(三桓)을 제거한 뒤 서자인 계오와 숙손첩으로 하여금 각각 계손씨(季孫氏 : 계환자)와 숙손씨(叔孫氏 : 숙손무숙)를 대신하게 하고 자신은 맹손씨(孟孫氏 : 맹의자)를 대신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계획에 실패해 제나라로 도망쳤죠. 이는 비단 노나라에서만 일어났던 특별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중국 한가운데 대국인 진(晉)나라도 대부들에 의해서 한(韓), 위(魏), 조(趙) 세 나라로 쪼개졌고, 노나라 이웃나라인 제(齊)나라 역시 망명 가문인 진(陳, 후에 전씨(田氏)로 변경)씨가 경쟁자들을 하나씩 제거하더니 나라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공자는 귀족들이 사치를 일삼고 번거로운 일들을 부하에게 떠넘기는 직무유기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힘들게 쟁취한 정권이 아니라 자동으로 주어졌기에 지도층의 나태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공자는 이런 군주들을 ‘소인(小人)’이라고 규정했죠.

“군자는 모시기는 쉽지만 설득하기는 어렵다. 정당한 방법으로 설득하지 않으면 설득되지 않는다. 사람을 부릴 때는 그 사람의 그릇에 따라 시킨다. 소인은 모시기는 어렵지만 설득하기는 쉽다. 설득을 할 때 비록 정당한 방법에 따르지 않더라도 설득할 수 있다. 사람을 부릴 때는 한 사람에게서 완전무결함을 요구한다.” - 《논어》, 「자로」 편

양호가 세습군주제의 빈틈을 노려서 노나라를 벼랑 끝으로 몰았던 것과 정반대의 방법으로 공자는 노나라의 귀족들을 코너로 몰았습니다. 왕위와 집권대부를 세습한 군주로부터 실질적인 권력을 빼앗아 공적을 기준으로 선발된 대신들로 대체했습니다. 공자의 제자들이 주도했던 관료제가 자리를 잡아가자 수세기 내에 세습적인 귀족정치는 사실상 중국에서 소멸되었습니다. 공자는 무혈혁명을 꿈꾸며 제자들과 견고한 팀워크를 이뤘고 중국 정치 구조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데 누구보다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다양한 출신 성분의 공자 제자들은 세상에 사랑의 씨앗을 심었다

고려시대의 국학(國學)인 국자감이 크게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사학의 활약이 더 돋보였죠. 이처럼 사학은 국가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사학의 역동적이고 건강한 전통은 공자로부터 시작합니다.

공자 사학은 학생들의 출신성분이 복잡합니다. 신흥지주와 상인, 농민, 평민의 자제들이 사학으로 대거 몰려들었죠. 만약 출신이나 가정환경, 생활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이익을 추구했다면 천편일률적인 모습을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공자 사학이라는 집단 안에 다양한 경제적·정치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성장하면서 귀족계층의 문화 교육 독점은 드디어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공자가 모든 신분을 가리지 않고 제자로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제자는 중인(中人)이었습니다. 이들은 부유하고 귀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배불리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책을 읽을 정도의 여유는 있었던 계층, 요즘 말로 하면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수적인 사상가답게 공자는 안정적인 세상을 원했습니다. 목자처럼 노동자 계층을 끌어안지도 않았고, 당시의 귀족정치와도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모든 것이 민중의 결의에 따라 결정되는 이런 체제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정체가 아님이 명백하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들었다면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논어》가 목표하는 독자 역시 대중이 아니라 엘리트입니다. 예수나 붓다처럼 대중과 거의 교류하지 않았죠. 하지만 공자의 제자들은 관직에 오를 수 있는 학식과 덕망,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 수준을 갖추으로써 사회를 개혁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변화는 당연히 백성에게도 그 혜택이 미쳤습니다.

공자의 도덕교육을 받은 제자들은 중국 전역에서 꽤 수요가 많았습니다. 도덕성이 무너진 사회에서는 도덕성이 귀해지죠. 양심적인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우리 사회의 병폐가 드러나고 건강해질 수 있었던 최근의 일들을 떠올려보세요. 내부고발자들 중 몇몇은 매우 유명인사가 되었고, 누군가는 인기에 힘입어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소개했듯이 춘추시대의 어느 나라를 가리지 않고 ‘반란 공포증’은 중국 전역을 위협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믿을 만한 관료는 더욱 절실히 필요하였죠. 계손씨 집안의 친인척인 계자연이 새로 들어온 신하 염구와 자료가 어떤 사람인지 공자에게 물었을 때 공자는 “당신은 좀 남다른 질문을 할 줄 알았는데 역시 염구와 자료에 대한 질문이군요!”라고 차가운 반응을 보이며 ‘자릿수만 채우는 신하[구신(具臣)]’이라고 혹평했죠. 하지만 “아버지와 임금을 시해하는 일은 또한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선진」 편)라고 보증해주었습니다. 과연 자료는 정변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위군(衛君)을 지키다 죽었습니다. 노나라에서는 양호의 정변 이후 공자 제자들의 관직 등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공자의 제자들은 노나라뿐 아니라 위나라와 제나라 등 여러 나라에서 벼슬을 했습니다. 각국의 군주 입장에서는 공자가 폭력보다는 설득을 통한 개혁을 설교하였기 때문에 공자의 제자들에게 권력을 위임하면 유혈혁명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공자는 사회개혁을 자신의 힘으로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죠. 자신의 생각을 새겨 넣을 젊고 뜨거운 가슴이 필요했습니다. 스파르타의 입법가 리쿠르고스(기원전 800? ~730)가 법률을 바위가 아닌 젊은이의 가슴에 새겨 넣은 것처럼. 공자가 애써 길러 낸 '도의 기사단'은 대를 이어 공자의 가르침과 헌신적인 사랑을 중국 전역에 수놓았습니다.

공자가 청소년들에게 남겨 놓은 경고

하루는 공자가 자신의 동네인 궤리(闕里)에서 한 소년에게 예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이를 신기하게 여겨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특별 과외를 하시는 걸 보니까 장래가 촉망되는 소년인가 보군요?” 공자는 한숨을 푹 쉬면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전부터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소년은 어른과 똑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몸가짐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어른의 뒤를 따르지 않고 나란히 걸어가고 있지 뭐니까? 이 소년은 장래가 촉망되는 게 아니라, 어른 흉내를 내고 있을 뿐입니다.”(《논어》, 「현문」 편)

공자는 2~30대부터 제자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평생 대화의 상대자는 제자들로 대개 30세 이상 나이차가 있었습니다. 평생동안 청손녀와 대화를 한 셈입니다. 공자가 청소년과 대화를 즐긴 까닭은 새로운 사고방식을 흡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른이나 귀족들은 요즘 말하는 ‘꼰대’처럼 재미가

없었을 뿐 아니라 별 지적 자극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무르익지 않아서 성급하고 실수가 잦았습니다. 《논어》에는 공자가 청소년들에게 하는 애정 어린 조언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청소년을 둘러싼 자로와의 연쟁이었습니다.

자로가 어린 자고를 비읍의 장관으로 삼았다. 공자가 화를 냈다. “이 남의 귀한 자식을 망치는 놈아!” 자로가 대꾸했다. “다스릴 백성이 있겠다, 사직(社稷)이 있겠다, 꼭 책을 읽어야 학문한다고 하겠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니 이래서 말 잘하는 놈들을 싫어하는 게야.” - 《논어》, 「선진」 편

청소년이 준비 없이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것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노동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하는 직업들은 그다지 높은 수입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만약 경험을 쌓을 목적이 아니라 생계의 목적으로 노동한다면 앞으로도 그보다 높은 수입을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골고루 가르칩니다. 학생들 중에서는 부모님이 돈 버는 것을 걱정하거나 돈 걱정을 지나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힘들게 돈을 벌어서 자녀를 공부시키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부모님이 마땅히 할 일입니다.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성급하게 직업전선에 뛰어들면 오히려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계획하고, 이를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하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공자가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를 엿들어보면 대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애정어린 조언입니다. 이걸 ‘꼰대질’과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꼰대질은 세상을 살 만큼 살아봤다는 어른이 어린 사람에게 가르치려 드는 행동이지만, 공자의 조언은 함께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지에게 하는 조언입니다. 공자는 단 한 번도 세상을 몇 년 더 산 것을 가지고 뽐내지 않았고,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늦게 태어난 사람이야말로 두려워할 만한 존재다”(《논어》, 「자한」 편)라고 말했으니까요. 이제까지 보기 어려웠던 ‘어른’의 참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